

마태복음 12장 22-29절 말씀

<1>상황, 사건

22 그 때에

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

예수께서 고쳐 주시매

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

<2>반응 - 무리 vs 바리새인들

23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

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

24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

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

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

<3>-1 주님 설명(1) 사건에 대하여

①

25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

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

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

26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

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

27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

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

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

②

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

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

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

29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

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

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